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37호 (2023-5)
발행일 2023. 6. 12.
ISSN 2092-7117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¹⁾

송창길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

- 공적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는 가운데, 재정추계의 중요성과 목적을 검토하였음.
- 현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제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용도로는 잘 작동하지만,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연금 개혁과 같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재정추계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방법론 구축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재정 분석 사례를 참조하고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및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01. 들어가며

◆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비롯한 각종 직역연금의 재정추계 결과는 현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음.

-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기여 대비 높은 연금을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미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며,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2055년, 204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1) 이 글은 송창길, 고경표, 최현수, 김지운(2022).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 연구』(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 건강보험 및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도 그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감사원(2022)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과 정부지원금 규모(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누적 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에는 5,76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초연금 역시 최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는 2021년 600만 명 수준에서 2060년에는 두 배인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신경혜, 김형수(2021)).
- ◆ 연금 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와 발전적 방향 제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현 상황을 돌이켜보고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02.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

-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지게 됨.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정추계의 주요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지출의 수준과 구성, 자원 부담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사회보장위원회. (2020)).
- ◆ 사회보장위원회는 위 법률에 따라,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 영역에 대해 사회보험 분야와 일반재정 분야로 나누어 2년 주기로 재정추계를 수행함.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대 정책 영역별 범주는 <표 1>와 같이 구분됨.
 -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으로는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가 활용됨.
 - 4차 재정추계(2020년)에서 인구변수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활용하였고,
 - 거시경제변수는 제4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망에서 사용한 경제변수(2019년 한국개발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함.
 - 재정추계 방법은 사회보험, 일반재정 분야를 나누어 전망한 후 이를 합하는 조성법 형태임.

- 사회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각 사회보험 기관의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하며,
 - 일반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보육 정책, 장애인 정책,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장기성 급여와 그 외 기타급여로 구분하여 추계함.
 - 이 중 장기성 급여는 코호트요인법, 그 외 기타급여는 일정 지출 증가율을 적용하고, 기초연금의 경우 제4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를 원용함.
- 전망 기간은 공적연금이나 국가 재정추계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향후 40~50년 정도로 설정함.

〈표 1〉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대 정책 영역별 범주

정책 영역	주요 내용
1. 노령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령연금 등 급여(조기 은퇴 포함) ▶ 돌봄 재할 일자리 등 노인서비스 관련 지출 예) 국민연금(노령연금·반환일시금),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퇴직급여·퇴직수당), 군인연금(퇴역연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단체 지원, 장사시설 설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공기업의 취약계층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2. 유족	▶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유족연금 등 급여 예) 국민연금(유족연금·사망일시금),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 군인연금(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급여·기타급여·사망조위금), 보훈급여(유족보상금 수당), 산재보험(유족급여, 장의비) 등
3. 근로 무능력	▶ 장애로 노동시장에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때 지급하는 급여 예) 국민연금(장애연금·장애일시금), 공무원·사학연금(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상이연금), 산재보험(휴업·장해·간병·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장애아 교육 지원, 보훈급여(전·공상군경보상금 수당), 공기업의 취약계층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4. 보건	▶ 의료 및 예방 등 공공보건지출 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요양급여), 집합보건의로, 공공보건의로 확충(원폭 피해자 진료비·장제비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5. 가족	▶ 자녀 양육 및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 관련 서비스 급여 예) 모성보호육아 지원, 보육·누리과정·아이돌봄 등 영유아 지원, 취약계층 농어촌 교육복지 지원, 입양·실종·방과후활동·성보호·폭력 및 가출 예방 등 아동·청소년 지원, 한부모·다문화·저소득가정 등 가족 지원, 여성폭력 등 여성 지원 등
6. 적극적 노동시장	▶ 수급자의 고용 상황 개선이나 취업 능력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출 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사업, 고용서비스사업, 고용장려금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7. 실업	▶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상과 해고수당 등 관련 급여 예) 고용보험(실업급여)
8. 주거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9. 기타	▶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 예)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지원, EITC 근로장려금, 군인·별정우체국연금(재해보조금), 사할린 한인지원, 임대주택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유재산피해복구지원, 문화바우처 지원 등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20).

◆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와 경제발전 정체, 사회보장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며, 특히 사회보험 지출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일반재정(예산) 투입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년에는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에 달해 OECD의 추계 당시 평균(2018년 20.1%)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8종 사회보험²⁾ 분야의 지출 규모는 2020년 GDP 대비 8.0%에서 2060년 2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60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규모 중 사회보험의 영향이 가장 크며, 그다음은 기초연금이 포함된 공공부조에 의한 지출임.
 - 이를 9대 영역별로 나누어 보아도 2060년 기준 노령과 보건 영역의 지출이 23.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사회보장재정추계	1차	12.9%	17.9%	22.6%	26.6%	29.0%
	2차	12.6%	16.3%	20.1%	23.7%	25.8%
	3차	12.1%	16.3%	20.8%	25.3%	28.6%
	A. 4차	12.5%	15.8%	20.1%	24.5%	27.6%
B. EU 28개국 평균 ¹⁾		24.8%	25.7%	26.8%	26.9%	26.8%
차이(A-B)		-12.3%p	-9.9%p	-6.7%p	-2.4%p	+0.8%p

주: 1) EC(2017)의 연금, 보건 등 복지지출 전망(2016~2070년).

자료: 1) EC. (2017). The 2018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 차수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표 3〉 제도 유형별(일반재정,¹⁾ 사회보험²⁾)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1차	일반재정	3.80%	4.60%	5.10%	5.40%	5.70%
	사회보험	9.10%	13.30%	17.50%	21.20%	23.20%
2차	일반재정	4.30%	4.50%	4.40%	4.20%	4.10%
	사회보험	8.30%	11.80%	15.70%	19.50%	21.60%
3차	일반재정	3.90%	4.50%	4.70%	4.60%	4.50%
	사회보험	7.70%	11.40%	15.80%	20.30%	23.80%
4차	일반재정	4.50%	4.80%	5.10%	5.10%	4.80%
	사회보험	8.00%	11.00%	14.90%	19.40%	22.80%

주: 1) 공공부조(기초연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자활 지원, 장애인연금, EITC 근로장려금), 사회보장(사할린 한인 지원, 보훈급여, 새터민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노인·아동·장애인 및 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합계.

2)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료: 차수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03.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현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모니터링 용도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3차 재정추계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표된 4차 재정추계에서도 일관된 수준으로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음.
- 또한 이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임.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즉, 현 제도의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미래 추이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용도의 재정추계는 잘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그러나 재정추계는 모니터링 용도 외에도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및 발전 방향 설정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 지침에도 재정추계의 목적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재원 부담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재정추계 목적에는 이러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 재정추계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찾기 어려움.
 - 각 사회보험의 기금 소진 이후 재원 조달 수준과 방안에 대한 논의에 활용되지 못하며,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통합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퇴직연금의 역할 등 구조적 개혁과 같은 종합적 논의에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모두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제도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어떤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도 없음.
- ◆ 특히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공통된 재정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큰 주요 주제를 논의하는 데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함.
 -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부담 및 조세 부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 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논의할 때에도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구조를 고려해야 함.
 - 연금 급여를 포함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나아가 공공부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연금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적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논의에서 동시에 다뤄져야 함.
- ◆ 현 재정추계 방법론은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하여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각 제도의 재정추계 방법론은 해당 제도의 특징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도별로 방법론이 상호 연관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생애주기 전반의 근로소득을 적립하고, 수급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장기적 관점의 현금 흐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계가 중요하고, 방법론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그에 비해 건강보험은 그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그해에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는 부과 방식 제도이므로 비교적 단기적인 의료비 지출 수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부조는 기금 방식이 아닌 일반재정이 활용되는 등 재정 성격도 사회보장제도마다 다름.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 등이 달라 재정추계 목적, 가정, 방법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현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식은 각 제도의 재정추계 결과를 합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제도별 재정추계 결과는 해당 기관의 데이터 접근성과 노하우, 공신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음.
- 이런 이질적 방법으로 산출된 결과를 단순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 수준의 재정 모니터링 용도로는 잘 작동했지만,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제도 간 상호작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 8종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결과는 각 기관의 결과를 원용하기 때문에 현 방법론으로는 서로 연관된 제도의 추계 결과가 동시에 변화할 수 없으며,
 - 해당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재추계한 결과를 다시 종합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도 있음.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이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의 재정 상황을 동시에 추계하고 종합적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 통합적 추계 방법을 고려해야 함.³⁾
 - 통합 추계 방법을 고려할 때 추계 범위로는 정부의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되 현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정성은 정부가 현재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지칭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주요 가정 설정에서는 각 제도의 법률에 기반하여 현 제도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일부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정변수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각 사회보험의 가입자 전망에서 기관별로 가입자 전망 방법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 모든 기관의 가입자를 단순히 합하면 전체 인구 또는 경제활동인구를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
 - 통합 추계의 분석 방법에서는 주기성, 투명성, 민감도 분석 등의 요소와 더불어 정책 변화가 분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거시변수와 재정변수 간 환류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분포적 특징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이 각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계층 간 대등적 관계를 평가하고, 정책의 논리와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거시변수와 재정변수 간 환류 효과를 고려하여 피드백이 없는 정책과 경제 결과 간 단순화된 기준선 예측(baseline)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방향이 가구 및 기업 등의 경제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통합적 추계 방법론의 여러 요건은 Shaw(2017)에서 정리한 장기 재정 분석의 모범 사례(good practices)와 선도 사례(leading practices)를 발췌, 정리한 것임.

-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주된 방법론으로는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이나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등이 있음.
 - 다만, 해당 모형들은 전망 목적보다는 분석 목적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 재정추계 방법론을 유지하되 추가로 분석적 측면을 강화하는 용도로 해당 모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방법론에서 이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추계 모형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

04. 나가며

- ◆ 현 상황에서 재정추계는 현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 제도를 위한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한 정보 제공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특히 최근의 재정추계 결과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음.
 - 4대 공적연금은 이미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사회부조 방식의 복지제도도 고령화 등으로 수혜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임.
- ◆ 그러나 현 재정추계 방식은 제도의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재정추계 방법론은 각 기관의 추계 결과를 원용하여 집계하는 방식인데, 이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향 논의에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 등의 주제는 특정한 한 종류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난제임.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재정추계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 모형 구축 시 다음의 요건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추계 및 분석 범위에서는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되 재정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공정성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가정과 분석 방법에서는 장기적인 균형과 경제 모델에서 파악된 관계를 고려하고 이질적 개인들의 분포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계층 간의 대등적 관계를 평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논리와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정책 방향이 가구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존 기준선 예측보다 더 섬세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과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다만 해당 모형들은 전망 목적보다는 분석 목적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 단기적으로는 기존 방법론과 병합하여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해당 모형들의 방법론을 전망 목적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감사원. (2022). 감사보고서 -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no=2792>.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사회보장위원회. (2014).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8373750166_20200107140911.pdf&rs=/upload/viewer/result/202306/.

사회보장위원회. (2016).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8373758535_20200107140919.pdf&rs=/upload/viewer/result/202306/.

사회보장위원회. (2019).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8373765247_20200107140925.pdf&rs=/upload/viewer/result/202306/.

사회보장위원회. (2020).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안). 사회보장위원회. https://www.ssc.go.kr/menu/manage/manage010100_view.do?hidCid=37087&hidBid=108&menuFile=manage010100.

사회보장위원회. (2020).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https://www.ssc.go.kr/menu/manage/manage010100_view.do?hidCid=37216&hidBid=108&menuFile=manage010100.

송창길, 고경표, 최현수, 김지운. (2022).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 연구(기타보고서 2022-1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경혜, 김형수. (2021).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모형 구축(정책보고서 2021-05). 전주: 국민연금공단.

EC. (2017). The 2018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European Commission.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18-ageing-report-underlying-assumptions-and-projection-methodologies_en.

Shaw, T. (2017).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analysis: Benchmark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OECD Journal on Budgeting, 17(1), 1-27.

집필 송창길(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495